



석우 스님의 조주록 선해 <29>

학승이 물었다.
“실제리지(實際理地)는 어디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그대가 한 번 더 청(請)해보아라.”

問 若是實際理地 什麼處得來
更請 開黎宜一遍

만물은 일정한 법칙에 의해 생성되고 파괴된다. 인간사 모든 것도 자세히 살펴보면 어떤 법칙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삼라만상의 근원을 법칙(法)이라고 본다. 우주는 법칙에 의해 생성되고 파괴된다. 조물주는 신(神)이 아니고 법(法)이다. 그 법의 속성을 법성(法性)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이렇게 만물을 지켜보고 법에 의해 생성되고 파괴된다는 것을 아는 자도 또한 자성(自性)이요, 법성(法性)이다. 법성에서 만 가지 이치가 쏟아져 나오는 것이니 사람의 자성이 우주의 이치를 토해내는 것이다. 법성을 또 다른 말로 실제리지(법)이 나오는 근원이라고 부른다.

실제리지를 얻는다는 것은 자기의 근본으로 돌아간 사람을 말한다. 깨달음을 얻는 것, 자신의 본질로 되돌아간 것, 부처를 회복한 것 등을 실제리지를 얻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실제리지를 어디에서 얻을 수 있을까? 독자들은 지금 당장 “실제리지는 어디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하고 큰 소리로 물어보아라. 이 말을 할 때 깨달으라. 이 소리를 내는 자가 바로 실제리지임.

학승이 물었다.
“만 가지 경계가 일시에 일어나 닥쳐와도 유혹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있다.”
학승이 물었다.
“무엇이 유혹되지 않는 것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그대는 불법이 있음을 믿고 있는가?”
학승이 말했다.
“불법이 있음을 믿는 일은 옛사람이 이미 말해 마쳤습니다. 무엇이 유혹되지 않는 것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왜 나에게 물어보지 않는가?”
학승이 말했다.
“이미 물었지 않습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조물주는 신이 아닌 법

<神> <法>

“그것이 유혹된 것이니라.”

問 萬境俱起 還有惑不得者也無
師云 有
學云 如何是惑不得者
師云 你還信有佛法否
學云 信有佛法 古人道了 如何是惑不得者
師云 爲什麼不問老僧
學云 問了也
師云 或也

만 가지 경계에 유혹되지 않는다면 이미 성인의 경지를 얻은 것이다. 갖가지 사상, 이념, 감정, 가치 등은 진실의 세계에서는 다 허망한 정의일 뿐이다. 따라서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은 어떤 경계에도 유혹되지 말아야 한다.

학승은 조주 스님에게 ‘유혹되지 않는 것’을 직접 물어보았다. 그러자 조주 스님은 분명 물음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학승의 물음을 뜻들은 듯 “왜 나에게 물어보지 않는가?”하고 재촉했다. 학승의 질문에조차도 유혹되지 않는 것을 직접 보여준 것이다. 그러나 학승은 “이미 물었지 않습니까?”하고 조주 스님의 질문에 유혹당해 마치 항변

“나는 혜(惠)속에서 대답하고 말하는 거야.”
학승이 말했다.
“그러시면서 어찌 법신은 설법하지 않는다고 말하시는 것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나는 혜(惠)속에서 그대들의 아버지를 구해주지만 그는 얼굴을 내밀지 않기 때문이야.”

問 未審古人與今人 還有近也無
師云 相近即相近 不同一切
學云 爲什麼不同
師云 法身不說法
學云 法身不說法 和尚爲人也無
師云 我向惠裡答話
學云 爭道法身不說法
師云 我向惠裡教 你阿爺 他終不出頭

여기서 옛사람(古人)은 역대 선지식을 말한다. 법신은 법을 설하는 몸을 말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법을 설하면 법신이다. 여기서 법신은 살아있는 오늘날 사람이다. 역대 선지식들은 많은 설법을 남기고 죽었다. 오늘날 후학들은 그 설법을 듣고 자기 자신을 알아가고 있다.

조주 스님은 옛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설법을 남기고 갔지만 오늘날 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전혀 설법하지 못하기 때문에 옛사람과 오늘날 사람들은 가깝기는 하지만 같지는 않다고 말한 것이다. 그러자 학승은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재차 물은 것이다. 노스님께서 지금 그렇게 설법하고 계시면서 어찌 설법하지 못한다고 하시는 반문인 것이다.
조주 스님은 분명히 말했다. 다만 나는 저 옛사람들의 은혜가 있어서 그 은혜를 갚기 위해 설법하고 있지만,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만 구원을 받은 자는 없기 때문에 설법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금강경>의 사상을 그대로 말하고 있는 것이다. 선사는 이렇게 평생 중생을 구원하지만 구원받는 자는 없다고 생각한다. 최상의 겸손이다. 이런 선사들이 지상 위에 가득해야 이 세계가 좀 살아 불만한 곳이 된다.

그대들의 아버지는 사람들의 본질을 말한다. 자성(自性), 불성(佛性)이다. 자성은 형체가 없어서 이름도 없고 성도 없다. 찾으려하면 숨어버려서 더욱 찾지 못한다. 영원히 얼굴을 내밀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자성을 깨달아 알 수는 있다. 그것이 견성(見性)이다.

■ 무불선원 선원장

만물은 법칙에 의해 생성되고 파괴된다

경계에 유혹되지 않아야 성인의 경지 얻어

마음의 분별이 일어난다면 유혹당한 것

이라도 하듯 반문한 것이다. 조주 스님의 질문에 따라가 이러니저러니 마음에서 분별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유혹당한 것이다. 선사의 대답은 즉석에서 순식간에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정답인 줄 모르는 경우가 많다.

학승이 물었다.
“옛사람과 지금 사람이 가까운 것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조주 스님이 말했다.
“가깝기는 가깝지만 일체(一切)는 아니다.”
학승이 물었다.
“어찌하여 같지 않습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법신은 설법하지 않기 때문이야.”
학승이 말했다.
“법신은 설법하지 않는다고 하시지만 지금 화상께서는 사람을 위하여 설법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김호귀 교수의 선어록 해제 10 신회어록

보조지눌 선사상에 큰 영향줘

하택신회(荷澤神會: 668~760 또는 670~762)의 속성은 고(高)씨이고, 양양 출신이다. 어려서 돈명(惲明) 스님에게서 오경(五經)을 받고 노장(老莊)의 사상을 배웠으며, <후한서>를 읽고 불교를 알아서 마침내 호원(顛元)에게 출가했다. 조계로 가서 혜능에게 4년 동안 참문한 후에 수도에 나아갔다 709년 무렵 다시 조계로 돌아와 혜능이 시적할 때까지 모시다가 밀인(密印)을 받았다. 개원 8년(720) 53세로 남양 옹흥사에 적주했고, 후에 낙양 하택사에 주석하면서 서천동토(西天東土)의 조사를 정하고 육조의 진당을 만들어 남종의 정통 확립에 힘썼다. 마침내 개원 22년(734) 정월 15일 황대 대운사에서 무차대회(無遮大會)를 열고 남북 양종의 정통과 방계를 정하고 북종을 배격했다. 그 때 신회(神會)가 북종에 대해 북종은 그 법계가 방계라는 사승사방(師承是傍) 및 그 법문이 점법이라는 법문시점(法門是漸)이라고 주장했다. 이로써 신회는 혜능의 선법을 중국의 선종사에서 정통으로 확립하는데 큰 공헌을 했다.

신회의 어록으로는 1930년에 호적이 출간한 <호적교본통당사본신회화상유집(胡適校敦煌唐寫本神會和尚遺集)> 1권이 있다. 호적은 런던 및 파리의 돈황본을 조사해 페리오드 및 새틀게 발견한 신회화상 관련자료 3종을 교정하고 아울러 종래에 알려져 있던 자료를 합쳐서 1권으로 만들었다. 호적이 수집한 자료는 대부분이 잔권(殘卷) 및 수미(首尾)가 탈락된 것이었지만 호적은 거기에 발문을 붙였다. 여기에 수록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페리오 3047(神會語錄第一殘卷本)>은 50개의 문답으로 구성돼 있다. 개원(713~741) 초기에 신회가 칙주에 의해 남양 개원사에 주석하면서부터 732년에 황대에서 북종을 비판하기까지 출가자 및 재가자들과 교류하면서 주고받은 문답을 기록한 것이다. 여기에는 왕조공(王趙公), 소진(蘇晉), 장연공(張燕公), 왕유(王維) 등의 이름이 보인다. 2) <페리오 3047(神會語錄第二殘卷本)> 후반부. 3) <독고패(獨孤浦)가 찬술한 <보리달마남종정시비문명서(菩提達摩南宗定是非論并序)>는 신회가 730~732년에 걸쳐 북종의 승원법사와 대결한 종론의 기록이다. 4) 스타인 468에 해당하는 <돈오무생반야송(頓悟無生般若頌)> 잔권(殘卷)은 <전등록> 권30에 수록된 <하택대사현종기(荷澤大師顯宗記)>의 후반부에 해당하는 단편이다. 5) 부록으로 수록된 <하택대사어(荷澤神會大師語)>는 <전등록> 권28의 <낙양하택대사시중(洛京荷澤神會大師示衆)>에 해당한다. 기타 <남양화상남종정시비오경전(南陽和尚南宗定是非五更轉)>은 <남종오경전(南宗五更轉)>이라고도 하는데 페리오

2045에 해당한다. 이것은 <보리달마남종정시비문>의 요지를 가곡의 형태로 정리한 것이다.

또한 <소실일서(少室逸書)>에 수록된 <남양화상돈교해탈선문직로성당어(南陽和尚頓教解脫禪門直了性壇語)> 1권은 신회가 718년 이후에 남양의 옹흥사에서 수계법회에서 설법한 것의 기록이다. 단어(壇語)는 <육조단경>의 경우처럼 계단(戒壇)에서 설법한 것을 가리킨다.

신회는 육조가 입적한 후에 낙경(洛京) 곧 낙양에 입성해 조계의 돈교(頓教)를 널리 펼쳤다. 신회의 <돈오무생반야송(頓悟無生般若)>에서 “무념(無念)을 종(宗)으로 삼고 무작(無作)을 본(本)으로 삼으며 진공(眞空)을 체(體)로 삼고 묘용(妙用)을 용(用)으로 삼는다. 대저 진여(眞如)는 무념(無念)으로서 상념(想)으로는 알 수 있는 바가 아니고, 실상(實相)은 무생(無生)인데 어찌 색심(色心)으로 볼 수 있겠는가.”라는 말처럼 적지(寂知)를 체(體)로 삼고 무념(無念)을 종(宗)으로 삼았다. 이것은 혜능선법을 충실하게 계승한 것이기도 하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남종의 종지가 정통임을 드러내려고 의도적으로 지은 것이다. 이것은 신회가 평생의 숙원으로 간주했던 남종의 정통성 확립에 있어서 법맥상으로 혜능을 내세웠다면 교의상에서 남종이 정통임을 주장한 내용이기도 하다.

이 가운데 교의상에서 신회가 주장한 입장은 네 가지이다. 첫째는 북종의 선법을 응심인정(應心入定)이라 하여 마음을 의도적이고 조작적으로 내세워 선정에 들어간다는 것이었다. 둘째는 좌선을 중시하는 북종의 입장에 대한 차이이다. 셋째는 문점의 문제에 대한 것이다. 신회는 북종의 입장을 점수라 하고 남종의 입장을 돈오라 했다. 돈오의 입장을 경전의 인용을 통해 ‘중생견성성불도(衆生見性成佛道)’, ‘용녀정각(龍女正覺)’, ‘영중생입불지견(令衆生入佛知見)’의 세 가지를 그 증거로 제시하고 있다. 넷째는 선법으로서의 원간근간(遠近看)이다. 신회는 북종의 원간근간도 응심(應心) 내지 주심(住心)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리하여 입정과 출정의 입장까지도 좌선의 형식에 얽매는 것으로 비판하고 있다. 기타 적지(寂知)는 공적영지(空寂靈知)로서 선종사에서 지(知)의 개념을 크게 확장해 이후에 규봉종밀(圭峯宗密: 780~841) 및 우리나라의 보조지눌(普照知訥: 1158~1210)의 선사상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이와 같은 신회의 어록을 통해서 중국 초기선종에서 하택의 위상이 확고하게 드러났다.

■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



동한본 <남양화상돈교해탈선문직로성당어>

기름값의 1/5 이하로 절약되는

슈퍼에너텍 순간전기보일러



국내특허 제0751485호
세계특허출원 PCT/KR2007/006534

국내개발 1호!

기름값 대비
80% 이상 절감
심야전기 대비
1/2 이상 절감 효과

사찰 . 포교당 . 불교시설 상담 대환영!!
전기보일러 15년 경력 전문가 직접 상담 시공.

사찰 전기공사 사찰 리모델링 상담대환영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불자 혜봉 -

상담전화 02)471-2356. 011-335-6389
www.superenertec.co.kr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신문사 전국 지사 안내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신문.
보다 편리한 구독신청 · 광고계약 · 기사제보... 연락주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지 사 명	지사장명	연 락 처
부산지사	이 재 진	051)632-4440 / 011-488-7745
대구지사	손 문 철	053)768-8008 / 016-813-8008
충청지사	혜철스님	043)732-5560 / 010-9422-8453
광주전남지사	양 행 선	062)384-3009 / 016-629-1508
전북지사	조 동 제	063)910-8977 / 011-9642-7733
영주지국	박 영 애	054)634-3429 / 010-9373-3778
경남 남부지사	청운스님	055)746-9778 / 011-870-0021